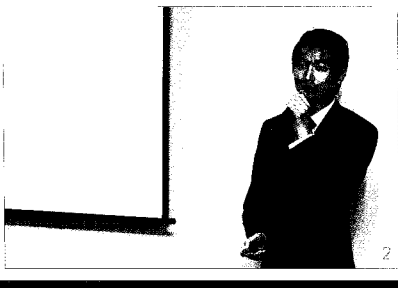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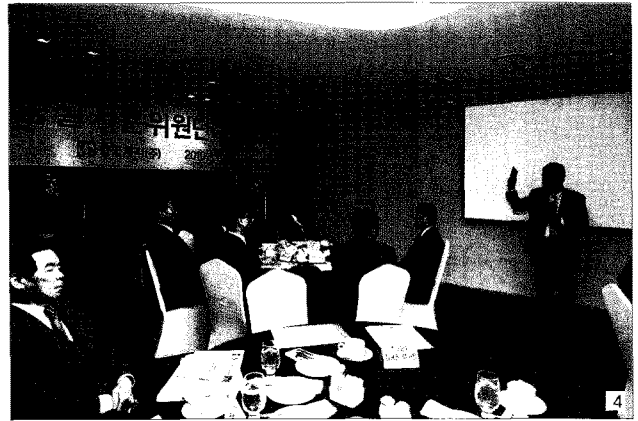
한국제지 품질자문위원단 회의 고객과 원활한 소통의 장 될 것 기대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중구 PJ호텔에서 품질자문단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광권 부사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품질 자문위원들에 대한 소개 및 앞으로의 자문위원단 운영 계획 등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어졌으며 한국제지 남기영 연구소장의 'PM3 Hi Bulk 생산제품개발', '제품 원료로 사용 중인 GCC/PCC 장·단점'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이어진 강의에서는 남원호 BGI 대표의 'IT기술발전이 종이에 미치는 영향', 하이델베르크 김정남 과장의 '인쇄기 신제품 동향', 시노하라코리아 박정희 대표의 '회사 소개 및 마케팅 방향' 등이 진행되었다. 끝으로 한국제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질의와 응답시간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자문위원단 운영에 대한 소개의 시간도 있었다.

새로운 전기 마련한 자문위원단 구성

한국제지 김광권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이를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온 인쇄용지 전문 생산회사인 한국제지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힘써왔으며 이



1. 품질자문위원회 1차 회의
2. 하이델베르크사 김정남 과장의 설명
3. 남원호 비지아이 대표의 발표
4. 김광권 부사장이 자문단 발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5. 김광권 부사장의 인사말
6. 오세웅 교수의 인사말

본 품질자문 위원단의 모임은 한국제지 제품의 질적 향상과 동종업계의 신기술, 최신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자문위원단은 BCI 남원호 대표, 서병기 정민프린테크 대표, 신구대학 오세웅 교수, 시노하라코리아 박정희 대표 등 16명이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매분기별로 정례 모임을 갖고 한국제지 제품의 품질에 대한 토론과 평가 및 한국제지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장기적인 과제도 다루게 된다.

앞선 기술력 투입된 고품질 제품 설명

1차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자문위원단은 의미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남기영 한국제지 기술연구소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쇄품질과 작업성을 향상시켜 주는 High Bulk 아트지의 개발'에 대한 설명에 이어 '친환경충전제 경질탄산칼슘'을 발표하여 한국제지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부원료로 보다 우수한 품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친환경충전제 경질탄산칼슘을 이용해 제지공장의 폐가스 CO₂를 활용한 공정을 통해 평활도 등 제품 품질을 개선시키고 정화비용의 감소, 능동적 환경보호운동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서울인쇄정보조합 남원호 상업인쇄부회 간사장은 'IT 기술발전이 종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어려운은 항상 있어 왔다"며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IT기술의 혁명적인 발전 속에서 인쇄업의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크게는 인쇄업계 전체의 과제이지만 작게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경영자 개개인의 몫이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노하라코리아와 하이델베르크사의 최신 인쇄 및 출판 기술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국제지는 첫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관심과 수준 높은 강의 등을 통해 품질자문위원단 발족의 의미가 크다고 앞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통한 인쇄와 제지, 출판 모두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